

캐시미어 산양(Cashmere Goat)

일반 양모를 채취하는 동물을 면양(Sheep)이라고 하였는데, 양모(wool)가 아닌 수모(獸毛 = hair)를 산출하는 동물을 보통 산양(goat)이라고 하여 면양과 구분한다. 가장 알기 쉬운 구분법은 면양은 수염이 없지만, 산양은 거의 모두 수염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의류 소재로서 양모 이외에도 많은 동물의 털이 이용되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이고 널리 사용되는 산양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캐시미어 섬유(Cashmere goat hair)란 캐시미어 산양의 울(wool)을 말하며, Capra Hircus 란 학명을 갖고 있다. 왜 털이라 하지 않고 울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는가 하면 털이란 용어만으론 이 섬유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캐시미어도 면양처럼 가축화하면서 면양과 가장 근접된 산양의 면모를 말한다. Wool과 Hair의 관계는 앞서서도 이미 설명한바 있으나, 아래에서 다시 한번 간단히 구분하여 둔다. 캐시미어 산양은 혹독한 추위에 속해 있는 지방에 서식하고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 털이 유난히 따듯하다. 마치 추운 지방의 동물 털이 더 따듯하듯...

캐시미어란 이름은 인도 대륙의 서북부 지방인 캐시미르(Kashmir)라는 계곡에서 유래된 것인데, 이 지방이 지금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경지대에 걸쳐 있어 정치적인 전쟁이 자주 일어나는 험악한 산악 지대다. 히말라야 산맥과 피르 판잘(Pir Panjal) 산맥에 끼어있는 캐시미르 계곡 일대는 인더스 강과 그 지류로 말미암아 목축이 발달하여 여기에서 캐시미어 산양이 사육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중국(내몽골 자치구, 신장 위그르 자치구, 감숙성, 산서성, 협서성, 청해성, 티베트 자치구)의 북서부지방과 네팔의 히말라야 지구, 몽골과 이란의 고지대에서 많이 사육되고 있다. 정제하지 않은 캐시미어 섬유의 최대 생산국은 중국으로서 1년에 약 1만 톤이

생산된다고 추정하고 있다. 다음이 몽골의 3천 톤 이상,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이란, 아프가니스탄, 터키 그리고 중앙 아시아제국으로서 세계 총 생산량은 15,000 ~ 20,000 톤 정도로 보고 있다.

잠시 털 이야기를 하겠다. 강아지나 고양이를 예로 들어보면, 봄이 되면 소위 털갈이라고 하여 개나 고양이의 털이 많이 빠진다. 이 빠지는 털이 말하자면 울이고 몸에 그냥 붙어있는 털이 헤어다. 대개의 동물은 이렇게 두 가지 털로 덮여있는데, 여름에는 헤어만 붙어 있다가 겨울이 되면 솜털이 헤어 사이사이에 솟아나서 추위에 대비하다가 봄이 되면 빠지는 원리다. 따라서 헤어는 굵고, 울은 가늘고 아주 부드럽다. 헤어(hair)를 자모 또는 강모(刺毛, 剛毛), 울을 면모 또는 유모(緬毛, 柔毛)라고 한다. 굳이 우리말로 하면 솜털과 거친 털의 차이라고 할까?

ASTM에서는 30 μm 보다 가는 것을 면모라 하고, 그 보다 굵은 것은 자모로 취급한다.

한가지 품종 중에서 면모와 자모의 섬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도 판별이 가능하다. 면모의 평균 섬도는 중국이나 외몽고 산이 평균 14.5 ~ 16.5 μm 이고, 이란 산이 17.5 ~ 19.5 μm 이며, 가타 국가의 것이 위의 두 가지 중간에 들어간다.

한편 자모는 30 ~ 120 μm 인데, 섬유의 길이는 면모가 25 ~ 90 mm, 자모가 40 ~ 200 mm 정도다. 따라서 캐시미어 제품이란 캐시미어 울을 사용한 것이다. 캐시미어 울은 봄에 캐시미어 산양의 털을 빗질하여 울만을 수거하거나 때로는 털을 몽땅 깎아서 식탁 같은 넓은 판위에 엮어놓고 손으로 울과 헤어를 분류하는 작업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수확된 캐시미어 섬유를 기름기(유지), 먼지, 헤어를 제거하고 나면 캐시미어 울만 남게 되며, 이것으로 만든 제품을 캐시미어 제품이라고 한다. 캐시미어 산양 한 마리에서 나오는 울은 약 500 g 밖에 되지 않는다.

캐시미어 울은 가늘고, 밀도가 치밀하면서도 가볍고, 따듯하다. 고급스러운 광택과 촉감이 부드러워 그 값어치도 한몫하여 섬유의 보석이라고 하여도 좋을 만하다.

캐시미어 울의 색상은 백색, 그레이, 브라운 3종류가 있다.

품질 기준은 울의 섬세함, 백도(白度), 길이가 기준이 된다. 섬유가 가늘수록 부드러운 광택이 나며 촉감도 부드럽다. 백색 캐시미어는 표백이 필요 없어 섬유가 손상될 염려가 없으며, 깔끔한 염색이 가능하다. 또한 섬유의 길이가 길면 방적성이 좋아져서 제품의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

캐시미어 제품은 캐시미어 10 %에서부터 100 %까지의 제품 영역이 넓어진다. 캐시미어와 혼방할 때는 보통 고급 메리노(merino) 양모가 파트너가 되며, 이때 캐시미어 울의 비율이 얼마인가에 따라 제품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난다.

용도는 스웨터, 머플러, 모자, 숄, 장갑, 양말, 코트, 스카프, 담요 등 비싼 제품에 많이 사용된다.

유럽으로 캐시미어가 소개된 것은 1798년 나폴레옹 1세가 이집트를 침공하고 나서 자기 처 조셉 피누에게 캐시미어 숄(Cashmere Shawl)을 선물한 것이 계기가 되었는데 당시 이 조셉 피누가 말하자면 패션 리더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급격히 프랑스 상류사회로 퍼졌던 것이다.

참고적으로 캐시미어 울의 등급을 소개하면 아래 표와 같다.

등 급	섬 도(μm)	길 이(mm)	Hair 혼입률(%)
1	14 전후	34 이상	0.1
2	14 ~15	30 ~34	0.2
3	16 전후	28 ~32	0.3 이하
4	16 이하	30 이하	0.4
5	16 ~17	28 이하	0.5 이상

한편 미국에서는 진짜 캐시미어 울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에 Cashmere란 용어를 사용하고, 메리노 양모만으로 캐시미어의 맛을 낸 제품을 Cassimere란 용어로 구분하고 있다.

♣ (공석봉)



<Cashmere Goat>